

131015

김우진

July 20, 2014

Revolution OS를 보고

나는 지금까지 구글의 검색이나 안드로이드OS,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것들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이런 좋은걸 무료로 배포하면 돈은 누가벌지?’하는 생각을 해 왔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이런 것들의 출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영화를 보는내내 리차드 스톨만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사람들의 선택의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사먹던 시절에 이런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그 정신이 아직도 이어져 내가 이렇게 편하게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성스러운 느낌도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선택의지와 서로가 서로의 것을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낫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엔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나라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초등학교때부터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 할 것이고,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는 더 높아 질 것이다. 그런 세상으로 가는 길 위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약간은 설레는 마음도 생겼다. 훌륭한 것들이 천지사방에 깔려있고, 노트북만 열면 그것들을 보고 배우고 내입맛에 맞게 수정해 배포도 할 수 있다니 말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오픈소스가 여러가지로 부족한게 사실인 것 같다. 주변의 거의 대부분이 상용 소프트웨어인 것을 보면 말이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 이 움직임에 일조를 하는 사람이 되고싶다.